'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토·크

유부남들이여 바람 피운 대가를 지불하라!

요즘 유부남들, 처녀 잘 안사귄다고 하더군요. 헤어지기 힘들까봐 무섭고 이혼하라고 괴롭힐까봐 두렵고, 책임지라고 할까봐 걱정되니까요.

돈 많이 들고 말도 안통하고 신경 많이 써야 하기에 안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벤트 해줘야하고 기념일 같은거 챙겨야하는데, 생각만 해도 골치아프다고 하는 남자도 있더군요.

처녀 꼬여내는 유부남들, 이런 생각조차도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대책없는 성격의 소유자들이지요. 상대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 가는대로,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참으로 이기적인 남자들이 처녀들과 연애합니다.

예전에는 유부남이 처녀 사귀면, 차도 사주고 집도 얻어주고 한살림 싸서 시집도 보내줬지요. 일말의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이 남의 인생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자세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대가를 치를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요즘은 그런거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마인드도 없고 돈도 없는 유부남들, 개나 소나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 결혼한 사람부터 결혼 년차 30년 넘는 할아버지들까지, 길거리에 바글바글하더군요. 정말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판돈도 없이 도박판에 들어와서 재미만 보겠다는 심보지요. 맨입으로 날로 먹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유부남과 연애하는 처녀들,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요. 유부남과 사귄 그 세월만큼 삶이 비틀려서 회복할 수 없는 상흔을 남깁니다. 나중에 다른 남자와 정상적으로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바람피우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 남자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 아내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불륜의 산증인이지요. 어떤 남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돈 이야기 하지 말라는 유부남들 계십니다. 정말 지겹네요. 그놈의 사랑타령…이젠 열도 안받습니다.

당신은 사랑인지 모르지만 그 아가씨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이고 흠입니다. 남의 인생 망가뜨리면서 재미봤으면 돈을 내야죠. 남의 집 귀한 딸 시집도 못가게 가로막고 데리고 놀았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 아가씨는 사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데리고 논거 맞습니다.

그 예쁘고 좋은 시절을 유부남 애인이라는 이상한 신분으로 보내게 했잖아요. 별볼일 없는 늙은 남자인 당신 쳐다보면서 한세월 망치게 했잖아요. 여자 하나로는 직성이 안풀리는 당신의 그 위대한 인생 위로해주느라, 모두가 욕하고 돌 던지는 자리에서 몇 년을 견디게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그 아가씨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데 그냥 가시면 안되지요. 그 아가씨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당신 몫은 따로 정산해야지요. 그 아가씨와 상관없이 당신이 감당해야할 몫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몫을 어떻게 다하냐구요? 자본주의가 좋은 점이 있지요. 모두가 다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지갑을 여시면 됩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 하늘의 별을 따지는 못해도 지갑정도는 여셔야지요. 유학을 보내주든지, 바리바리싸서 시집을 보내주든지, 집이라도 한 채 사주세요. 그따위 돈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하찮다는 돈도 없이 여기 덤비는 당신들은 도대체 뭡니까?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오지호 옛애인 자살 네티즌들 입방아

1월 셋째주 인터넷은 탤런트 오지호씨와 자살한 오씨의 옛 애인 소식이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다.

특히 오씨가 지난 9일 자살한 룸살롱 종업원 A(28)씨가 자신의 애인이었음을 시인하고 미니홈피에 심경을 고백하는 글을 올린 뒤 인터넷에서는 오씨가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특히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가 오씨의 고백이 나오자 해명하기에 부심했던 오씨 소속사에 비판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범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고건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소식도 핫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고 전 총리의 대권 도전 포기로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를 분석하는 네티즌도 많았다.

시즌 첫 골을 넣은 박지성도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다.

박지성의 첫 골을 넣는 동영상은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인기 동영상에 올랐고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댓글이 잇따랐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전직 대학교수가 쏜 석궁 화살에 맞아 부상하는 초유의 법관 테러 사건도 이슈가 됐다.

이외 미국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제 6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모습을 보인 브래드피트·안젤리나 졸리 커플, 김윤진 등 유명 배우들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시상식에서 극영화 부문 남녀 주연상은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왕'에서 우간다의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 아민 역으로 열연한 흑인배우 포레스트 휘태커, 스티븐 프리어즈 감독의 '여왕'에서 다이애나비의 사망 이후 갈등을 겪는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실감나게 연기해낸 헬렌 미렌에게 돌아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 6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한 브래드피트·안젤리나 졸리 커플.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트 닷컴 제공〉

1위	김형은 사망	6위	법관 피습
2위	아이폰	7위	박지성 골
3위	1·11부동산대책	8위	64회골든글로브
4위	에버랜드사고	9위	연예인애인자살
5위	노홍철집	10위	고건

뉴스퀴즈

47.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특별 담화를 통해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제 임기를 바꾸자고 밝혔는데, 지난 87년 개헌 이후 20년 만에 권력구조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가요.

① 4년 연임제 ② 5년 단임제
③ 7년 단임제 ④ 8년 연임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9일(음 12월 1일 癸丑)

子 36년생 직업의 沈滯와 재물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48년생 자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 60년생 막힌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인내해야 한다. 72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나 再充電하라. 84년생 大苦는 없지만 득도 없다. 행운의 숫자 : 10, 40

丑 37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49년생 평범한 하루이나 苦惱數는 있다. 61년생 시간을 내어 주변을 살펴보라. 73년생 직장에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신해야. 85년생 후배와 금전거래는 금물. 행운의 숫자 : 20, 43

寅 38년생 하늘 한번 우러러 보라. 50년생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점검해보라. 62년생 길사가 계속 될 것이나 손아래 사람의 苦衷을 생각하라. 74년생 자기개발에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1, 27

卯 39년생 남자는 처가 쪽을 여자는 시가 쪽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라. 51년생 자녀로 불편은 있으나 어렵지는 않다. 63년생 문서는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야 하리라. 75년생 보증은 절대금물이고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할 때. 행운의 숫자 : 12, 41

辰 40년생 심기가 개운치가 않으니 운동을 해야. 52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하라. 64년생 유흥 속에 虛送歲月 한탄 하랴. 76년생 형제나 근친간의 말썽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고 삼사일언하라. 행운의 숫자 : 08, 30

巳 41년생 부부 및 주변에서 소사에 소쟁이 일어날 수 도 있다. 53년생 모든 일이 즐겁게 시작 된다. 65년생 부부의 일전이 예상되니 서로 사랑하라. 77년생 절대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09, 37

午 42년생 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으니 부부간의 등산으로 意氣投合을 시도해 보라. 54년생 처나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66년생 미운 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아라. 78년생 옛 것으로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행운의 숫자 : 07, 36

未 43년생 부부간의 사랑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55년생 용기 있게 전진하면 무리 없이 결과가 좋다. 67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 할 수도 있다. 79년생 가정과 부부간의 불화는 쌍방과실이니 사랑으로 해결하라. 행운의 숫자 : 2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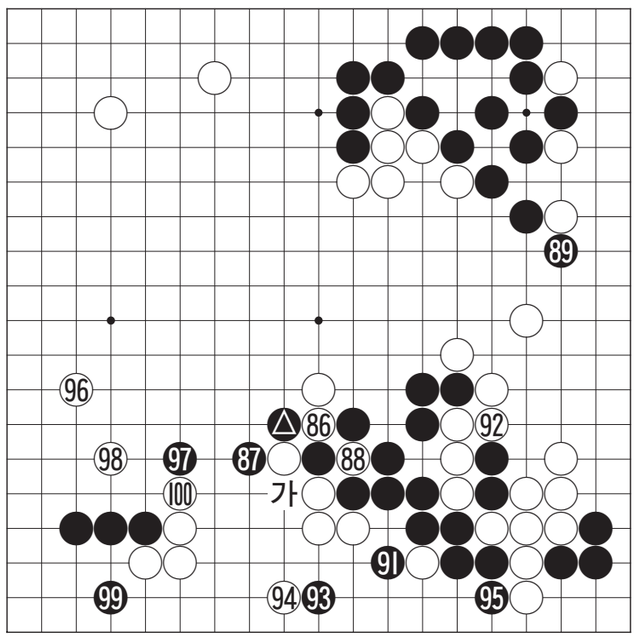
申 44년생 沈滯現狀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손아래사람에게 내 것을 내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56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68년생 될 듯 될 듯한 계획이 계속 미루어진다. 80년생 헛 문서 잡고 눈물이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21, 25

酉 45년생 뒷일을 마무리 할 사람이 없다. 57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69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마무리가 시원치가 않다. 81년생 지혜 있는 선배와 상의하고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행운의 숫자 : 14, 27

戌 46년생 枯木回春이니 더욱 더 잘 가꿔야. 58년생 희망의 새아침을 만나는 격이니 계획을 세워라. 70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보라. 82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체해도 괴로워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17, 38

亥 47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의 아픔들이 보인다. 59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정직과 신뢰에 있다. 71년생 큰 투자는 미루고 신사업의 내실을 기하면 心的苦痛은 없으리라. 83년생 여성을 만날 땐 꼭 결혼한 선배와 상담하라. 행운의 숫자 : 0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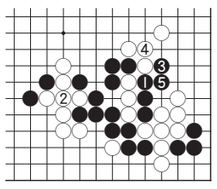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2회 전남호지사배 바둑대회 최강부 결승

믿을 수 없는 팻감 7보(86~100)

白 홍석의 6단 〈목포시〉 黑 김종민 6단 〈해남군〉



〈참고도〉

김종민 6단이 흑 △로 젖혀 승부수를 던진 장면이다. 패를 걸어간 이상 이 패는 반드시 이겨서 백이 '가'로 잇도록 굴복시켜야만 한다.그런 다음 좌변을 벌려가면 아직도 희망은 있다.

김 6단이 팻감으로 쓴 곳은 믿을 수 없게도 흑 89. 이 수는 팻감이라기보다는 끝내기에 가까운 수였다. 백은 얼씨구나 하고 당연히 패를 이어버렸고 이래서는 모든 뒷맛이 사라졌다. 백의 우세가 더욱 더 고착화 돼버린 것이다.

흑 89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끊는 패를 써야만 했다. 만약 백이 패를 잇는다면 5까지 우변이 초토화되고 귀의 뒷맛이 살아난다. 백이 받아야만 하는 팻감이다. 흑이 패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백이 패를 이기고 나자 흑 대마가 살아야 하는 것도 피곤하다.

흑 91로 두었으나 백 92가 맛좋고 96으로 쟁점이던 좌변마저 차지해 홍석의 6단이 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민진, 日 가토게이코 제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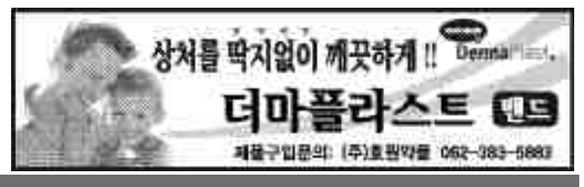
이민진 5단이 18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10국에서 일본의 가토 게이코 5단을 275수 끝에 흑 불계로 따돌렸다.

한국 출전 선수 5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민진은 이날 승리로 한국에 2승째를 안기면서 실낱 같은 희망을 살려냈다.

이민진은 오는 3월12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3라운드에서 중국의 2장과 격돌한다. 정관장배는 한·중·일 3국 선수 5명이 연승전 방식으로 대국한다.

제한시간 1시간(초읽기 40초 1회)이 주어지는 속기전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23>

You're kidding

농담이시겠죠

A:We've been chosen to have a free cruise,
B:**You're kidding.**
A:No joke! We really were selected.
B:Wow. I hadn't expected this at all.

A:공짜 해상여행에 당첨되었습니다.
B:**농담이시겠죠.**
A:농담 아닙니다. 우리 정말로 당첨되었습니다.
B:와, 저는 이런 것을 전혀 기대안했습니다.

be chosen to~ : ~에 뽑히다
be selected : 선발되다
응용표현
- Are you kidding me?
  저한테 농담하는 겁니까?
- You are kidding : 농담이시겠죠.
- No kidding : 농담하지 마십시오.
- You've got to be kidding : 농담이시겠죠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823>

時間がないからタムシに乗(の)ろうか?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 탈까?

A:**時間(じかん)がないからタムシに乗(の)ろうか。**
B:でも、この□(へん)はタムシ拾(ひろ)いにくいですよ。
A:困(こま)ったなあ。約束の時間に間(ま)に合(あ)わないよ。
B:驛(えき)まで走(はし)るしかないですね。

A:시간이 없으니까 택시 탈까?
B:하지만, 이 근방은 택시 잡기가 힘듭니다.
A:곤란한데. 약속 시간에 못 가겠는데.
B:역까지 달리는 수밖에 없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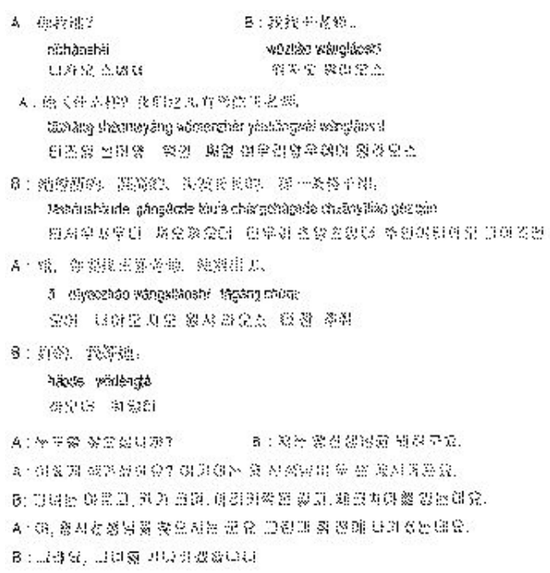
乗(の)ろうか : 탈까
拾(ひろ)いにくい : 잡기 힘들다
困(こま)る : 곤란하다
間(ま)に合(あ)わない : 약속 시간에 못가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4>

她长得怎样?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41>

騎虎之勢 (기호지세)

말탈 기, 범 호, 어조사 지, 기세 세

기호지세(騎虎之勢)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듯한 기세(氣勢)이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비유한다.

일단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되면 도중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 내리게 되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랑이 등에 탄 채 호랑이 가는 곳까지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 말은 수(隋)나라를 건국한 문제(文帝), 즉 양견(楊堅)에 관련된 고사에서 나온다. 양견은 남북조시대 북주(北周)의 마지막 왕인 선제(宣帝) 때 재상으로 있다가, 선제가 죽자 선제의 어린 아들에게 제위(帝位)를 양도받아 수나라를 세웠다. 또 8년 후에는 남조의 진을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했다. 그런데 양견이 북주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을때 뒷날 독고황후가 된 그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어 이런 말을전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상 도중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騎虎之勢不得下虎). 도중에서 내린다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니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호랑이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미 큰일을 도모한 이상 도중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부디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러한 아내의 말은 큰일을 도모하는 양견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